

# “전북을 그린뉴딜 중심지로”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북6대 실천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북을 지역경제 부활,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북 6대 실천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서울 열린캠프 사무실에서 온라인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전북지역 기자단 중심으로 전라북도 지역공약 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 후보는 “전북은 제가 추구해온 정치철학이 태동한 곳으로 자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각별한 지역”이라고 칭찬한 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은 이재명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앞으로 걸어갈 사회적 삶의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은 산업경제가 발전하던 시기부터 소외돼 중앙집중식 불균형 성장정책의 피해지역”이라며 “역을

합이 없는 공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전북의 꿈, 전북도민의 염원을 실현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전북지역 경제를 부활시키고 다가오는 에너지대전환 시대에 그린뉴딜 중심의 전북을 만들겠다고 6대 공약을 밝혔다

고 했다. 관련해 “전북과 전주가 국민연금공단을 기반으로 하는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전북을 에너지 대전환과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험산업단지(RE100 산업단지)로의 조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 전북공약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 ▲보건 의료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보건의료 불균형 해소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과 공항, 철도 등 교통망 확충으로 전북의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을 발표했다 /뉴시스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14일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실질적 균형 발전 책임자”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38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12명은 14일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지방의원 38명은 이재명 경선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전북의 대전환을 이뤄가는 역사적 발걸음을 함께하기를 다짐한다”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문제인 정부가 전북에 뿌려놓은 미래 씨앗이 잘 싹을 낼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철학을 가진 이재명 후보가 다음을 이어갈 적임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공약 이행을 98%라는 믿기 어려운 실천 행정을 보여줬다”며 “특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환적 성장을 강조하고, 실질적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나가겠다는 주장에 강한 연대를 표명한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갈 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잇는 명실상부한 제4기 민주개혁 정부로 정권 재창출의 선봉에서 서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 13일 정세균 후보가 대권후보 사퇴를 한 것과 관련해 “시기 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원래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다”며 “민주당은 하나인 만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하나로 뭉쳐서 굳건하게 사수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지지 선언에는 ▲전북도의회(6명) 이병도(전주)·김대오(익산)·김정수(익산)·이정진(남원)·이한기(진안)·진행석(비례) 의원과 ▲전주시의회(9명) 이미숙·이기동·김은영·김민주·최용철·이남숙·송승용·김동현·정성길 의원 ▲익산시의회(3명) 강경숙·박철원·한상욱 의원 ▲남원

### 민주 전북 지방의원 36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선언

시의회(12명) 윤지홍·염봉섭·윤기환·강성원·김영태·김정현·최형규·한명숙·박문화·노영숙·이미선·양해석 의원 ▲김제시의회(1명) 김승일 의원 ▲순창군의회(3명) 전계수·손종숙·신정이 의원 ▲임실군의회(2명) 김양중·황일권 의원 등 모두 36명이 참여했다. /유호상 기자

### 민주 신영대 의원, 군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국비 24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은 군산시가 한국관 뉴딜의 일환인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국고보조사업”은 도시부 도로의 교통 및 안전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 선정에 군산시와 신영대 의원의 협력이 빛났다는 평가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산시는 2년간 국비 24억 원을 포함 총 40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시간 도로 영상분석 등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과 함께, 스마트 신호체계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 김민영 전 정읍시립조합장 민주 정책위 부의장 임명

김민영 전 정읍시립조합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김민영 신임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열린 제52차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중책을 맡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정읍시민과 국민들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우게 세상을 위한 약자들에게 힘이 되는 민생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당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정읍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 부의장은 정읍시립조합 4선 조합장과 신임조합중앙회 비상임이사, 정읍 구절초 축제추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식견도 풍부한 ‘경영·환경전문가’로 정평이 나갔다

김 부의장은 “집권 여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이 막중하다”며 “국가적 정책 개발과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전북도와 정읍시의 현안 사업들이 정부 여당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음=김대환 기자

## 도내 문화예술인 311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문명학 전북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이사장과 김은채 한국전통가요협회 전북지회장 등 전북도내 문화예술인 311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 지역 문화예술인은 14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인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마련한 예술인 창작자금 지급 조례안

은 가뭄의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전북 문화예술인은 환영의 박수와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 문화예술인은 우리

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복지 사회보장에 관심을 가진 정치인을 지지한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러한 면에서 혁신적이고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예술인을 지원하는 지도자라고 본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문 이사장 등은 “최소한의 생활 안정 확보를 위해 예술인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점차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후 “우리 예술인들은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며 “이 지사가 문화예술을 친근하게 꽃피워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으로 발돋움시킬 지도자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집에서 보자

제32회 백제가요 정음시 문화제

정음(정음) 그리고 사랑(愛)

2021. 9.25(토) ~ 9.26(일) 2일간

정음사예술회관

주최 | 주관 정음시 사)정음사문화제제전위원회

<p><b>9.25(토)</b></p> <p>채수이례 10:00 - 정음사공연 우물</p> <p>여인제례 11:00 - 정음시 사무</p>	<p><b>9.25(토)</b></p> <p>축하공연 18:40 - 정음사예술회관</p>	<p><b>9.26(일)</b></p> <p>정음사가요제 15:00 - 정음사예술회관</p>
---	---	---

경관조명 | 9.14(화) ~ 11.14(일) - 정음사공원 ~ 정동교 ~ 둘하다리

**이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비대면으로 개최 합니다.**

행사 참여 희망자 사전 예약 (예매처 : 티켓링크 무료) 9월 10부터 예약가능



전북도의회 스마트농업활성화연구회가 농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원예농업 스마트 영농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 “스마트팜 시설 초기 투자비용 최소화”

### 도의회 스마트농업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스마트농업활성화연구회(두세훈 대표 의원)는 지난 10일 농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북도 원예농업 스마트 영농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두세훈 의원(완주)·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가 첨단농업의 메카로 아시아 농생명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등 ICT를 적용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다수 농업인이 고령·영세농으로 단기적인 보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도내 농가들의 스마트영농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용역과제 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소진 센터장은 “스마트팜 도입 현황과 전남도에서 소규모 비닐하우스인 단동하우스에 도입한 보급형 스마트팜이 기존 스마트팜 시설비용의 약 65% 수준으로 설치비를 낮춘 자체 개발 모델 사례”를 설명하면서, “용역과제를 통해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은 “농업인 구 고용화 농경지 감소 기상이변 등의 대안으로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도내 중소규모 대립농가들이 스마트농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진입장벽을 낮춘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는데 도의 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의원은 “스마트팜 시설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해서 청년농업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면서, 최근 스마트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농가의 사례를 들어 “스마트팜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인 스마트농업활성화연구회는 두세훈 대표의원, 내인권 연구책임의 9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김민영 전 정읍시립조합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